

E1

이원

2026. Spring

스케치북

: 우리들의 소식지



## 목차

1. 이원 뉴스
2. 신규 입사자 소개
3. FOCUS\_E1
4. 봄 특집호
5. 우리들의 소식지
6. 함께해요 이원 퀴즈

[Dynatrace Perform 2026]



01.26 ~ 01.29 Dynatrace Perform

'Agentic AI'가 여는 자율 운영의 시대

지난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된 'Dynatrace Perform 2026'은 전 세계 IT 전문가들이 모여 지능형 관측(Observability)의 미래를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올해 행사의 핵심은 단순한 모니터링을 넘어 AI가 스스로 판단하고 실행하는 'Agentic AI'로의 진화였습니다.

IT 운영의 패러다임이 단순 자동화를 넘어 'AI 기반의 자율 운영 시대'로 완전히 진입 했음을 선언 하며, 복잡한 클라우드 환경을 다스리는 기술의 힘을 증명한 시간이었습니다.

1월

현대트랜시스 전사 PMS 구축  
현대오토에버 장비이력관리 기능개선  
한진정보통신 IBM Cloudability

3월

대한항공 PIP 시스템 Fuse 증설 1Y Subscription  
Dynatrace Korea Partner Forum  
쿠광 Dynatrace Phase2 Implementation  
현대오토에버 해석정보시스템 개편

2월

KT ITO 운영  
LGU+ 레비아탄 운영  
KT알파쇼핑 차세대시스템 운영  
Dynatrace Perform 참석 (고객 동행)



03.06 Dynatrace Korea Partner Forum

안녕하세요. 신규 입사자입니다.

2026년 봄, 우리와 함께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게 된 신규 입사자들을 소개합니다. 설레는 첫 시작을 함께하게 된 신규 입사자들이 회사에 잘 적응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따뜻한 관심과 격려로 반갑게 맞이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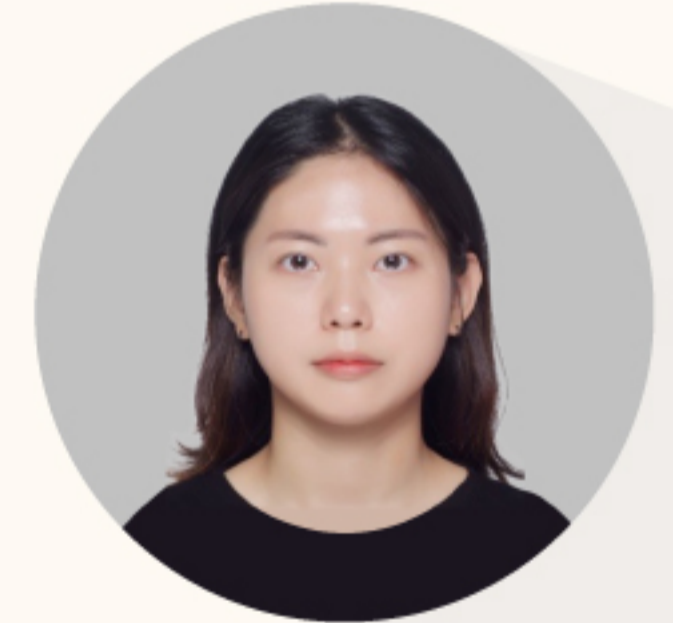
BS본부 BS3팀 이필환 프로

**이름** 이필환 **소속** BS본부 BS3팀  
**나이** 1985년생 **MBTI** ENFP  
**취미** 영화 감상, 드라마 감상  
**나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팀의 든든한 명품 조연  
**첫 출근 날, 기억에 남는 순간이나 느낌은?**  
속으로 '내가 돌아왔다' 라는 생각에 입꼬리가 자꾸 올라가던 기분좋은 첫 출근날이었습니다.  
**포부**  
새로운 지식과 시스템을 빠르게 흡수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팀원으로 성장해 꼭 필요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름** 김미경 **소속** BS본부 BS1팀  
**나이** 1993년생 **MBTI** ISFP  
**취미** 가아곰 등산  
**나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편하게 함께 일할 수 있는 동료  
**첫 출근 날, 기억에 남는 순간이나 느낌은?**  
새로운 환경이다 보니 긴장도 있었지만, 이전 경험이 있어서인지 업무 흐름을 파악하는 데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기서는 어떻게 다를까'를 보는 재미가 있었고, 분위기가 편안해서 자연스럽게 적응할 수 있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처음이라 조심스럽긴 했지만, 빠르게 익숙해질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던 하루였습니다.

**포부**  
이전 경험을 바탕으로 빠르게 업무에 적응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단순히 주어진 일을 처리하는 것을 넘어서,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다면 먼저 고민하고 제안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함께 일하는 분들이 편하게 느끼면서도, 업무적으로는 신뢰할 수 있는 동료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BS본부 BS1팀 김미경 프로



# 일곱 빛깔 무지개로 다시 서다

더 쉽고, 더 빠르게. 개발자를 위해 완성된 AI Agent, Arcus가 드디어 베일을 벗었습니다. 개발 환경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할 Arcus의 모든것! 그 흥미진진한 여정을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 Q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먼저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원정보기술 기술지원 본부장 박은환입니다. BS 본부로 입사해 TS 본부로 자리를 옮긴 뒤, 지금까지 한길을 걸어온 25년 차 엔지니어입니다. 초창기에는 JSP, JavaScript, HTML 기반의 웹 개발과 C, Java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매달렸고, 이후에는 IBM WAS, EAI/ESB, DataPower, B2B, APIC 그리고 Google Apigee까지 엔터프라이즈 미들웨어의 중심에서 일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Kubernetes, Prometheus, Grafana 같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생태계로 지평을 넓히고 있습니다. 기술은 끊임없이 바뀌어 왔지만, "좋은 시스템이란 결국 사람을 돕는 것"이라는 생각만큼은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TS 본부 박은환 본부장

## Q Arcus를 개발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먼저 Arcus에 대한 소개와, 이 멋진 이름에 어떤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Arcus는 내부 개발자 플랫폼, 이른바 IDP(Internal Developer Platform)입니다. 개발자가 인프라의 복잡함에 매몰되지 않고 오롯이 코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서비스 생성부터 배포, 모니터링, 거버넌스 그리고 폐기까지의 전체 Soft Life Cycle을 하나의 포털에서 셀프서비스로 해결해 주는 플랫폼이지요. "Arcus"는 라틴어로 "무지개"를 뜻합니다. 사실 이 이름에는 조금 개인적인 사연이 있습니다. 오래전 저와 동료들이 함께 만들었던 모니터링 제품이 바로 "레인보우(Rainbow)" 시리즈였거든요. 한 시절 같은 책상에 앉아 밤을 새우며 만들어 낸 그 이름을, 오랜 시간이 흐른 지금 다시 한번 꺼내 들고 싶었습니다. 무지개는 저마다 다른 색이 서로를 해치지 않고 한 줄기 빛 속에서 함께 빛나는 현상입니다. Arcus 역시 그런 플랫폼이 되기를 바랍니다. 흩어져 있던 CI/CD, 모니터링, 문서, 보안 도구들이 각자의 색을 잃지 않으면서도, 하나의 개발자 경험 위에서 아름답게 어우러지는 그런 공간 말입니다. 레인보우가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비춰 주는 창이었다면, Arcus는 "무엇을 만들 것인가"를 함께 그려 가는 도화지입니다. 과거의 제가 쌓아 올린 한 층 위에, 지금의 제가 또 한 층을 올려 보는 일. 저에게 Arcus는 기술 프로젝트이기 전에, 한 엔지니어로서 걸어온 25년을 조용히 이어 주는 하나의 다리이기도 합니다.



BS본부 BS2팀 정상준 프로

**이름** 정상준      **소속** BS본부 BS2팀  
**나이** 2002년생      **MBTI** ENTP  
**취미** 여행, 영화시청  
**나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웃을 때는 웃고, 할 일은 책임감있게 하는 사람  
**첫 출근 날, 기억에 남는 순간이나 느낌은?**  
 첫 출근이라 낯설고 긴장되었지만 다들 반갑게 맞아 주셨고 새로운 시작이라 설레었습니다.  
**포부**  
 앞으로 빠르게 적응하여 자기 몫을 해내는 사람으로 성장하겠습니다.

**이름** 윤주현      **소속** BS본부 BS3팀  
**나이** 2000년생      **MBTI** ISFP  
**취미** 당구, 영화시청  
**나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한결 같은 사람  
**첫 출근 날, 기억에 남는 순간이나 느낌은?**  
 팀원분들께서 먼저 다가와 주시고 세심하게 챙겨주셔서 긴장이 조금 풀렸던 순간이 기억에 남습니다.  
**포부**  
 빠르게 적응하여 도움이 될 수 있는 개발자가 되겠습니다.



BS본부 BS3팀 윤주현 프로

**이름** 김재룡      **소속** BS본부 BS3팀  
**나이** 1984년생      **MBTI** ENFP  
**취미** 운동(복싱), 음악 감상  
**나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겸손한 마음으로 차근차근 배워가는 사람  
**첫 출근 날, 기억에 남는 순간이나 느낌은?**  
 새로운 환경에 긴장감이 있었지만, 모든 분들이 친절하고 따뜻하게 맞이해 주셔서 깊이 감사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포부**  
 절차와 협업을 존중하며, 주어진 자리에서 안정적으로 역할을 해내겠습니다.



BS본부 BS3팀 김재룡 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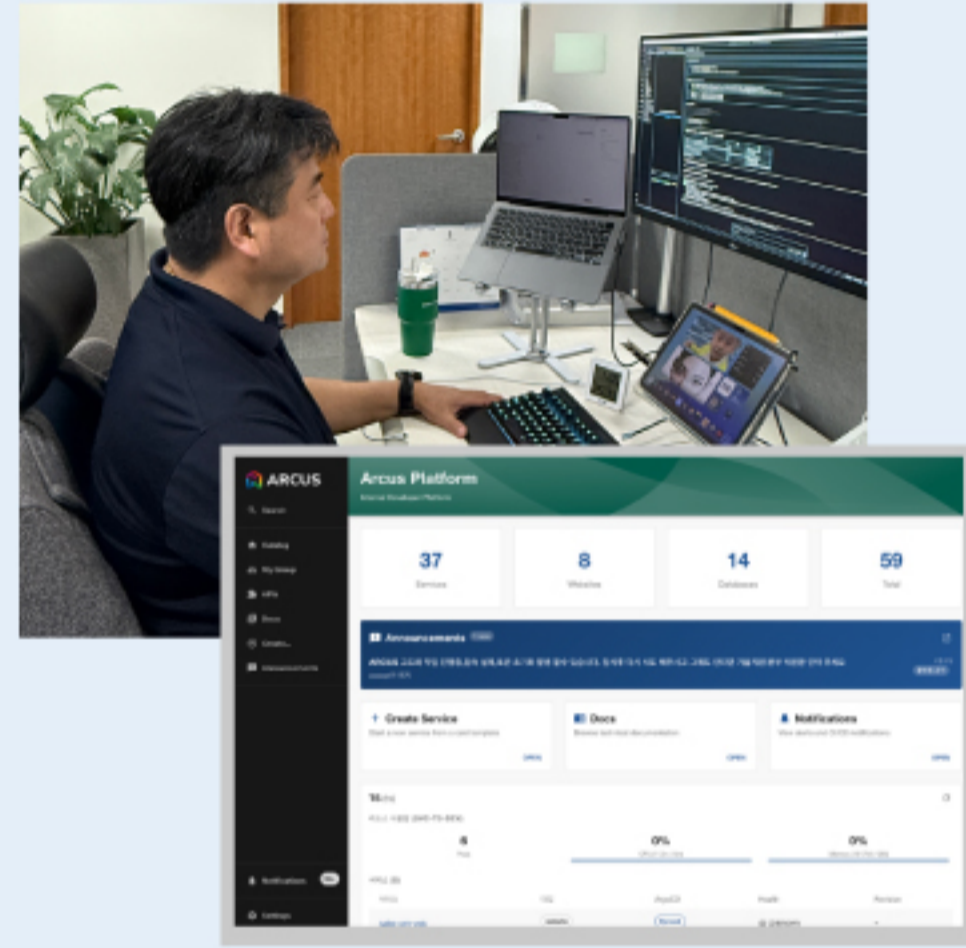
# "저마다 다른 빛이 한 줄기 속에서 함께 빛나 무지개가 되듯, Arcus는 흩어진 도구들을 하나의 경험으로 이어 줍니다."

## Q Arcus 개발은 어떻게 해서 시작하게 되었나요?

사실 씨앗은 오래전부터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S사 프로젝트를 마치고 돌아온 뒤로 "개발자가 더 쉽게 일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한 구상을 늘 품고 있었죠. 다만 실행에 옮기지 못한 채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장님과 클라우드 신기술에 대해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던 중이었습니다. 사장님께서 늘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이 많으셔서,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IDP와 AI Agent로 흘러갔지요. 한참 동안 듣고 계시던 사장님께서 "그럼 한번 해 봐"라고 짧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마디가, 오랫동안 품고만 있던 구상에 시동을 걸어 주었습니다. 때로는 시작을 위한 완벽한 조건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저 "해도 괜찮다"라는 누군가의 허락 같은 한마디면 충분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 Q 타 솔루션과 차별화되는 Arcus만의 독보적인 기능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가장 큰 차별점은 바로 AI Agent입니다. 대부분의 IDP는 잘 만들어진 포털 UI를 통해 기능을 제공합니다. Arcus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개발자가 자연어로 말을 걸면 플랫폼이 스스로 일하도록 설계했습니다. "서비스 하나 만들어 줘", "어제 에러 로그 분석해 줘"라는 말 한마디로 배포와 조회, 진단이 이뤄집니다. 명령어를 외우는 시대에서, 의도를 전달하면 되는 시대로 넘어가는 것이지요. 결국 기술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을 돕는 일에 있습니다. AI Agent는 그 목적에 가장 가까이 다가선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Arcus

## Q 개발 과정에서 기술적으로 가장 구현하기 어려웠던 부분은 무엇이었으며,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화면 UI 작업이 제게는 가장 약한 부분이었습니다. 25년을 서버와 미들웨어 영역에서 보낸 탓에, 사용자의 눈에 보이는 영역을 다루는 일은 늘 낯설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이번에는 AI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았습니다. 설계 의도를 대화하듯 전달하면 시가 코드를 제안하고, 저는 거기에 오랜 현장 경험을 얹어 다듬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AI는 부족한 부분을 단지 대신해 주는 도구가 아니라, "하고 싶었지만 못 했던 일"을 비로소 할 수 있게 해 주는 동반자라는 사실을요.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다는 용기를, 이번 프로젝트가 제게 다시 선물해 주었습니다.

## Q 플랫폼을 설계하면서 사용자 경험(UX) 측면에서 가장 신경 쓴 부분은 무엇인가요?

좋은 사용자 경험은 결코 혼자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Arcus의 가장 든든한 뿌리는 BS 본부의 지원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현장에서 고객과 부딪히며 쌓아 온 BS 본부 개발 전문가들의 경험이 Arcus 곳곳에 녹아 있습니다. "이 화면에서는 이런 정보가 꼭 보여야 한다". "이 작업은 두 번 클릭이 아니라 한 번에 끝나야 한다"라는 구체적인 조언 하나하나가 모여 지금의 Arcus가 만들어졌습니다. 좋은 UX란 결국 "누군가가 이 길을 먼저 걸어 보았다"라는 흔적이 있어야 비로소 완성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Arcus의 UX는 여러 동료의 발자국이 함께 만든 길입니다.

## Q Arcus 도입을 통해 향후 어떻게 변화될 거라 기대하시나요?

Arcus가 단지 개발자들만의 도구로 머물지 않기를 바랍니다. 장기적으로는 회사의 모든 본부가 각자의 방식으로 활용하는 플랫폼이 되었으면 합니다. R&D 본부에는 제품 개발의 허브가 되고, BS와 BI 본부에는 개발과 테스트 환경이 되며, 인사·총무·영업 본부에는 자사 업무 시스템을 운영하는 기반이 되는 것이지요. 플랫폼의 진정한 가치는 만든 사람의 상상을 넘어, 쓰는 사람들이 새로운 쓰임을 발견할 때 비로소 드러난다고 믿습니다. Arcus가 그런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 Q 마지막으로 Arcus를 활용하게 될 동료 개발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Arcus는 아직 성장 중인 플랫폼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완성이 아니라 출발선 위에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사용하시면서 느끼는 불편함, 문득 떠오르는 아이디어, 작은 의문 하나까지 모두가 소중한 피드백입니다. 많이 써 주시고, 많이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의 목소리 하나하나가 Arcus라는 무지개에 또 하나의 색을 더해 줄 것입니다. 함께 만들어 가는 이 여정에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 미리 써본 Arcus, 개발자들의 리얼 보이스 ]



## Q Arcus를 미리 체험해 보셨는데 실제로 사용해 보시니 어떠셨나요?

### A. 한은영 (BS본부 BS2팀)

Arcus를 미리 체험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겨 먼저 경험해 보며 가장 크게 느꼈던 점은 [서버 작업의 진입장벽을 많이 낮춰주는 시스템]이라는 점입니다! React, Spring Boot, MySQL 등 다양한 서비스와 리소스를 웹에서 카드 형태로 간편하게 생성하고 적용할 수 있어 서버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도 큰 어려움 없이 작업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서버 설정이나 적용 과정에서 헛갈릴 수 있는 부분들이 Docs로 잘 정리되어 있어 필요한 내용을 바로 확인하면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사용했을 때 개발한 환경과 Arcus에 준비된 환경이 달라 걱정이 되었지만, 필요한 리소스를 추가해 주시고 전반적인 환경 설정을 세심하게 지원해주신 덕분에 훨씬 수월하게 작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Arcus 웹 내에서 바로 쿼리를 작성할 수 있는 기능처럼 실제 작업 편의를 고려한 요소들이 반영되어 있다는 점이 특히 좋았습니다. 단순히 배포를 도와주는 수준을 넘어 개발자가 작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Arcus는 개발자가 서버 환경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업무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유용한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팀에서 편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 A. 김미경 (BS본부 BS1팀)

Arcus라는 서버 적용 플랫폼을 사용해 보니, 서버 및 개발 환경 구축에 지식이 많지 않은 개발자도 비교적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카드' 형태로 프론트엔드, 백엔드, DB를 하나의 흐름 안에서 관리할 수 있어 구조를 직관적으로 파악하기 쉽고, 지원하는 기술 스택 역시 DB는 PostgreSQL과 MySQL, 프론트엔드는 React, 백엔드는 Spring Boot(Maven 기반) 등으로 일반적인 웹 서비스 개발 환경을 무난하게 커버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포 프로세스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Jenkins와 유사한 구조이지만 사용자 측면에서는 더 직관적이고 다양한 기능을 제공해 편리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기존 개발 환경과 Arcus 환경이 다를 경우 이를 맞춰 다시 구성해야 한다는 점에서 우려가 있었지만, 환경 설정에 대한 문서 가이드가 충분히 준비되어 있었고, 막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빠르게 지원받을 수 있어 전반적으로 수월하게 구축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DB 서버에 직접 접속할 수 없는 상황이었었는데, 해당 내용을 전달하자 빠르게 DB TOOL 탭이 추가되었습니다. 덕분에 별도의 DB 접속 없이도 플랫폼 내에서 SQL을 작성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점이 너무 좋았습니다. 배포 이후에도 모니터링 기능을 통해 서비스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로그 및 트레이스를 활용해 오류나 버그를 비교적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점도 장점입니다. 전반적으로 Arcus는 서버 환경 구축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개발자가 더 쉽게 서비스를 배포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유용한 플랫폼이라고 느꼈습니다.

# 소유하고 싶은 일상의 탐닉, 디자인 뒤에 숨겨진 공간을 채우는 '테크 오브제'

눈에 익숙한 실루엣 속에 감춰진 혁신적인 기술력. 단순한 편리함을 넘어 삶의 결을 풍요롭게 다듬어줄, 지능형 센서와 AI로 무장한 스마트 아이템 큐레이션을 모았습니다.

## Sony aibo



Companion robot

털 날림 제로 반려견

단순히 프로그래밍된 대로 움직이는 기계가 아니다. 소니의 혁신적인 로보틱스와 AI가 만나 탄생한 '아이보'는 매일 주인과 교감하며 스스로 학습하고 성장하는 특별한 존재이다. 최첨단 딥러닝 기술을 통해 주변 환경에 익숙해지고, 시간이 흐를수록 고유한 성격을 형성하며 세상에 단 하나뿐인 동반자가 되어 갑니다. 기지개를 켜거나 꼬리를 흔드는 자연스러운 몸짓은 물론, 최근 업데이트로 장난감을 물고 노는 귀여운 모습까지 더해졌다. 전용 앱을 통해 간식을 주거나 상태를 확인하는 가상 인터랙션까지 가능해 실제 반려 견을 키우는 재미를 느낄 수 있다.

Pocket AI Robot

주머니 속 AI 반려친구

AIBI Pocket Pet은 음성 명령과 대화형 AI를 기반으로 사용자와 자연스럽게 교감하는 포켓형 반려 로봇이다. 실시간 기상정보를 알려주고 복약 시간이나 중요한 일정을 챙겨주는 알림 기능까지 갖춰 비서 역할도 수행하며, 작고 귀여운 디자인에 노래, 춤, 게임, 앱 연동 기능을 더해 일상에 소소한 재미를 선사한다. 언제 어디서든 함께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AI 펫이라는 점에서 기술과 감성을 동시에 경험하게 해주는 제품이다.

## AIBI - Living.AI



## Ray-Ban x Meta



AI Glasses

안경, 지능을 입다

레이밴 메타 2세대는 메타 AI를 탑재한 스마트 안경으로, '헤이, 메타!'라는 음성 호출만으로 전화, 사진 촬영, 동영상 녹화, 음악 재생, 맛집, 요리 레시피, 정보 검색, 실시간 번역 등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 오픈 이어 스피커를 통해 정보를 들려줘 이동 중에도 두 손을 자유롭게 쓸 수 있으며, 1세대보다 카메라 화질과 스피커 음질, 배터리 효율도 한층 좋아졌다. 웨이퍼어러를 비롯한 다양한 프레임과 컬러로, AI 기술을 스타일리시하게 경험할 수 있는 점도 매력이다.

Smart Ring

손가락 위의 개인 비서

삼성전자가 새롭게 선보인 '갤럭시 링'은 웨어러블 기기의 한계를 넘어, 24시간 끊임없는 건강 관리를 실현한 반지 형태의 스마트 디바이스이다. 시계보다 가볍고 밀착감이 높아 차세대 헬스케어의 핵심 폼팩터로 주목받고 있다. 가벼운 티타늄 프레임과 매끈한 곡선형 디자인은 링을 착용한 사실을 잊게 할 만큼 편안하며, 강인한 티타늄 바디와 10 ATM 방수 기능을 가진 갤럭시 링은 한번의 충전으로 최대 일주일간 사용할 수 있다.

## Galaxy Ring



Galaxy AI는 축적된 건강 데이터를 분석하여, 더 건강한 일과와 더 편안한 밤을 위한 맞춤형 건강 및 수면 정보를 제공한다.

27년의 진심에 지능형 혁신을 더하다.

# 우리의 새로운 얼굴, CI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우리 회사가 27년 동안 쌓아온 든든한 기술력 위에 새로운 옷을 입었습니다. 급변하는 AI시대, 이제 이원정보기술은 시스템 구축을 넘어 지능형 서비스(Intelligence Service)를 제공하는 미래로 나아갑니다. 이러한 변화와 비전을 담아, 기존의 '이원(E1)' 브랜드에 'Intelligence'의 가치를 더한 신규 CI와 공식 도메인 E1i를 새롭게 선보입니다.



### E1i 데이터의 가치를 지능적으로 잇다

우리의 새로운 도메인이자 상징인 E1i는 우리의 정체성을 한층 깊게 정의합니다.

#### - E1 (Enterprise 1)

: 기업용 시스템 및 인프라 구축 분야에서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독보적인 No.1파트너를 의미합니다.

#### - i (Information to Intelligence)

: 기존의 정보(Information)관리 역량을 넘어, AI 기술로 접목한 지능화(Intelligence) 사업으로의 도약과 새로운 가치 창출로 고객의 비즈니스 혁신을 가속화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 CI에 담긴 우리의 미래를 향한 비전과 역동성의 연결

새로운 로고의 선과 형태 안에는 이원정보기술이 지향하는 기술 철학이 숨 쉬고 있습니다.

#### - 비상하는 역동성

: 이상향하는 라인은 IT 기술의 속도감을 넘어, AI를 통해 미래를 먼저 내다보고 진취적으로 대응하는 우리의 기술력을 상징합니다.

#### - 연결과 확장의 가치

: E1은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고 업무 자동화를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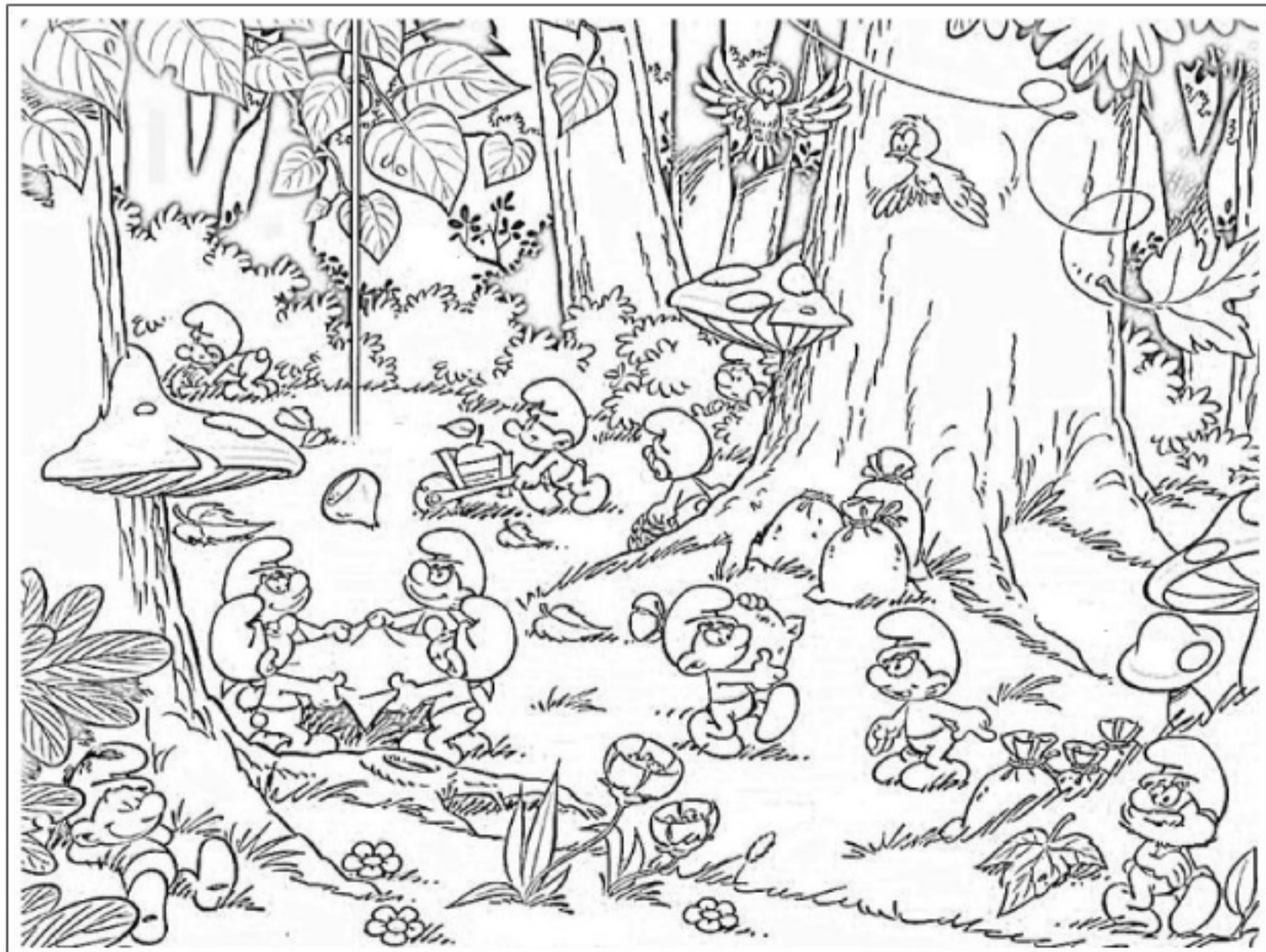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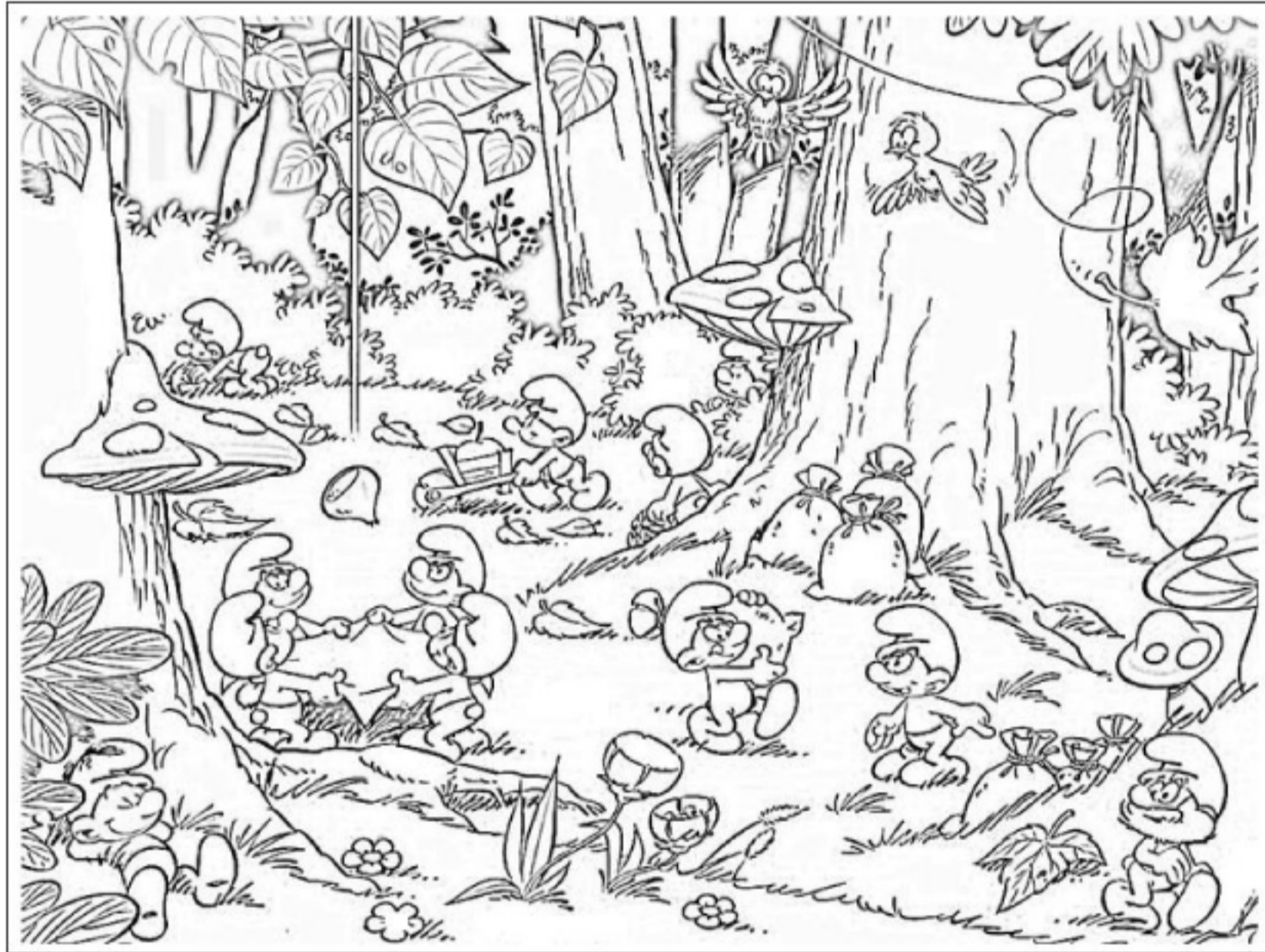
신규 CI는 이러한 역량을 기반으로 데이터·업무·의사결정을 지능적(Intelligence)로 연결하고 확장하여 고객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는 기업의 지향점을 담았습니다.

새로운 도메인 e1i.co.kr와 함께 시작될 우리의 변화는 임직원 여러분과 함께 피워낼 혁신의 꽃이 될 것입니다. 27년의 탄탄한 뿌리 위에서 더 스마트하게 피어날 이원정보기술의 내일은 곧 우리가 증명해 보일 새로운 역사가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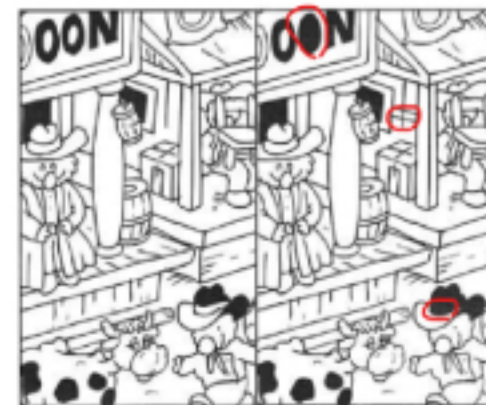
# 이원 퀴즈 Vol.12

사우분들을 위한 즐거운 심표! 집중력이 필요한 '다른 그림 찾기'부터 사보의 핵심 소식을 담은 '내용 퀴즈', 그리고 똑똑해지는 '상식 퀴즈'까지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원의 퀴즈 코너를 함께 즐겨보실까요?

① 아래 그림 중 다른 곳 20개를 찾아주세요.




◆ 정답 제출 예시  
해당 이미지 캡처 후,  
찾은 내용을 표기해  
보내주세요!



- ② 당사에서 개발자를 위해 서비스 생성부터 배포, 모니터링, 거버넌스까지 하나의 포털에서 셀프서비스로 해결해 줄 수 있게 개발한 플랫폼은 뭔가요?
- ③ 새롭게 바뀐 CI는 기존의 '이원(e1)' 브랜드에 어떠한 핵심 가치를 더하여 탄생했을까요?
- ④ 당사 플랫폼을 미리 체험해 본 개발자는 어느 팀 누구인가요?

### [ 2025년도 겨울 사보 정답 ]

1. 
2. 4번
3. 김진경 영업대표, 이건주 영업대표, 조형석 팀장
4. 태국 방콕

### [ 참여 방법 ]

1. 이원 퀴즈 답변을 메일에 작성.
2. 메일 제목 '2026년 봄 사보 퀴즈 정답 제출'로 작성 후, 사보 담당자에게 메일 보내면 참여 완료.  
(사보 담당자 : 디자인&마케팅 본부 원근호 본부장)

### [ 참여 기간 ]

26년 05월 22일 금요일까지 참여해 주신 분들에 한하여 추첨을 통해 다섯 분께 3만원 상당의 선물을 드립니다.